

예약타이머 사용하면 엄청난 에너지절약이!

■ 이선호 기자(w3master@energycenter.co.kr)



외국어대 러시아어학과를 졸업한 김주설 사장은 롯데그룹에서 무역 관련 업무에 종사하다 타이머와 인연을 맺게 됐다. 기계식은 너무 단순하고 전자식은 너무 복잡해 제품에 타이머 기능이 있어도 소비자가 잘 사용하지 않는다는 점을 인지한 김씨는 편리한 타이머를 개발하게 되었다.

본격적인 난방시즌이 도래했다. 각 가정과 사무실, 빌딩, 산업체 등에서는 보일러 및 온풍기를 가동해 추위에 대비하고 있다.

맞벌이 부부인 김모씨의 경우 출근을 서두르다 보면 보일러를 켜놓은 채 집을 나서기 일쑤다. 아무도 없는 집에서 보일러는 저 혼자 가동과 멈춤을 반복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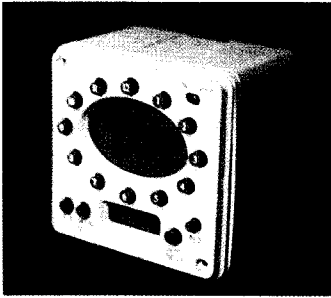
퇴근 무렵 일찍 퇴근한 김씨는 보일러를 작동시키고 온기가 돌 때까지 두툼한 외투를 걸친 채 방안을 서성거린다. 아내가 회식으로 늦기 때문에 일어난 일이다. 김씨는 그 날 부부싸움을 했다.

그러나 이제 김씨는 이런 일로 부부싸움을 할 필요가 없을 것 같다. 시간 예약타이머를 부착하면 타이머가 알아서 보일러를 끄고 켜기 때문에 허둥대지 않아도 된다.

공장에서 가동되는 산업용 보일러도 마찬가지다. 산업용 보일러는 예열시간이 필요하다. 따라서 보일러취급자는 30분에서 1시간 정도 일찍 출근하여 보일러를 점화시켜야 했다. 하지만 예약타이머를 부착하게 되면 저절로 보일러가 작동하게 되므로 서두를 필요가 없어진다.

그동안 시간 예약타이머는 외국산 제품이 국내 시장을 장악해 왔다. 하지만 예약 작업이 복잡하고 성능이 들쭉날쭉해

Esco People



“헤라타이머는 기존 전자식 타이머가 갖고 있는 복잡한 입력방식을 지양하고 현재 널리 쓰이는 기계식의 단순함을 극복해 사용자들이 시계를 보듯 예약상태를 쉽게 확인할 수 있는 발명특허 제품이다. 아울러 버튼 조작횟수가 기존 타이머에 비해 1/2로 적고 사용설명서가 따로 없어도 될만큼 사용하기 때문에 획기적이다.”

제품에 채용되어 있다 하더라도 제대로 기능활용이 이루어지지 않아 왔다. 이러한 외산 제품의 단점을 극복하고 십이진법을 활용, 편리성을 증진시킨 ‘시간 예약 타이머’가 개발돼 관심을 모으고 있다.

15년 이상 국내에 외국 제품을 공급해오던 (주)헤라타임스의 김주철 사장이 그 주인공. 김 사장은 80년대 후반부터 독일, 프랑스 등 선진국으로부터 기계식 또는 전자식 타이머를 수입해 롯데기공, 코오롱ENG, 경동보일러, 린나이코리아, 삼성전자 등에 납품해왔던 인물이다.

“기존의 타이머들이 예약방식과 상태 확인 등에 많은 문제점이 있어 새로운 방식의 예약타이머를 구상하게 되었습니다. 이 제품은 소비자들이 쉽게 사용할 수 있고 한 눈에 예약상태를 확인할 수 있어 타이머의 기능성이 한층 강화된 특허제품입니다.”

김 사장은 이 아이디어로 99년 조선일보와 현대증권이 공동 주최한 ‘벤처아이디어공모전’에서 50개 아이템 및 전기전자 부문 7개 아이템에 입상하기도 했다. 또 97년과 올해 국내 발명특허를 획득했고 지난 2000년에는 일본 특허를 획득하여 새로운 방식의 타이머임을 입증받았다. 이 때 받은 평가가 “기계식이 아닌 국내 디지털 타이머도 이제 쓸만한 시대가 왔다”는 것. 이후 김 사장은 벤처에인절의 투자를 받아 2년여의 개발기간 끝에 마침내 상품화에 성공했다.

이 기술의 가장 큰 특징은 기존 전자식 타이머가 갖고 있는 복잡한 입력방식을 지양하고 현재 널리 쓰이는 기계식의 단순함을 극복해 사용자들이 시계를 보듯 예약상태를 쉽게 확인할 수 있다는 점이다. 아울러 버튼 조작횟수가 1/2로 크게 줄어들어 사용설명서가 따로 없어도 되기 때문에 획기적이다. 예를 들어, 현재 비디오나 TV의 경우 예약을 하려면 21번의 버튼 조작이 필요하나 헤라타이머는 12번이면 된다. 1분 단위까지 세팅이 가능하고 취소도 쉽다.

이 제품의 적용 대상처는 그야말로 광범위하다. 비디오, TV, 에어컨 등 타이머가 들어가는 가전제품은 무엇이든 가능하다. 또 예약이 필요한 각종 산업기계, 가정용/산업용 보일러

등 냉난방 시설, 화웨이 및 농업시설, 간판, 네온사인, 학교의 벨소리와 같은 분야도 적용 대상중 하나이다.

타이머의 국산화로 국내 수입 물량의 대체에 큰 전기를 마련했다고 자평하고 있는 김 사장은 “현재 개발된 제품 뿐만 아니라 기술 응용 등 다양한 제후가 가능하다”고 밝혀 기대감을 감추지 않았다. 가격대는 현재 시중에 판매되고 있는 기계식과 비슷한 수준이어서 소비자들로서도 큰 부담이 없다.

“많은 사람들이 생활의 편리함을 향수할 수 있도록 정부나 사회단체들에서도 관심을 가져주었으면 합니다. 또한 정확한 시간의 조절을 통한 에너지절약효과도 크게 기대할 수 있기 때문에 에너지 관련기업들의 사업제후도 환영합니다.”

헤라타임스는 타이머 이외에도 AC/DC 타이머 모듈, 각종 온도조절기, 온/습도계, 전자밸브 등을 취급하고 있으며 일반 소비자를 대상으로 하는 전자식 타이머를 개발 중에 있다.

아이디어가 제품으로서 실용화되기까지는 선각자들의 수많은 피와 땀을 필요로 한다. 김 사장의 전자식 타이머 국산화 역시 수백 번의 시행착오와 반복실험을 거친 후에 나온 것이다. 작은 부분이지만 타이머의 올바른 선택 및 사용이 에너지 절약에 미치는 효과는 결코 적지 않다고 할 것이다. e

